

지역 매아리

정읍시, 설날 씨름대회 위한 숙박업소 지도 점검 실시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2019 설날장사 씨름대회를 맞아 내일부터 25일까지 숙박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9~20 정읍방문의 해의 첫 시작이 될 2019 설날장사 씨름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숙박업소의 합리적 요금 제시 여부, 침구류 청결 여부, 친절서비스 시행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선수들이 식음·공중위생업소와 협력하여 위생환경 개선과 친절서비스를 향상하고 설 연휴동안 정읍시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숙박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2019 설날장사 씨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준비하고, 관광객들이 다시 찾는 정읍이 되도록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농특산물·문화관광 통합브랜드 개발 본격 '시동'

고창군이 농특산물과 문화관광에 적용할 통합브랜드 개발을 본격화 한다.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최근 국내 브랜드 전문가와 고창의 농특산물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농수축산물 통합 브랜드 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그간 고창군은 '황토배기', '선연' 등 브랜드와 '모로모로(고창군 공식 캐릭터)' 등 다양한 상징물을 제작·활용해 왔다. 하지만 차별성과 경쟁력이 떨어지고 브랜드위치가 약해 고창을 대표하는 브랜드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에 고창군은 민선 7기 고창을 대표하는 상징요소와 농특산물, 문화관광에도 적용되는 공동브랜드를 융합한 통합브랜드를 개발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천혜의 생태자원과 미래 지향적인 고창군의 이미지를 결합하고, 지역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은 통합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는 등 모두의 의견이 모아졌다.

고창군은 앞으로 통합브랜드와 스토리텔링 개발을 위해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계, 연구기관, 생산자대표 등이 참여한 가치 '브랜드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안에 최종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객에게 믿음을 주는 브랜드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며 "고창군의 역사와 문화,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특수성을 포함한 한반도 첫수도 고창군의 미래 지향성을 담은 통합브랜드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싱그런 5월엔 역시 책”

고창군, 한국지역도서전 준비 분주... 책마을 해리 중심으로 5월 9~12일 예정

고창군은 지역 인문학 대표축제인 '제3회 한국지역도서전'이 오는 5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창 책마을 해리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한국지역도서전은 2017년 제주광역시(한라도서관 일원)를 시작으로 2018년 경기권역 수원시(행궁광장 일원)에 이어, 올해는 전라권역 고창군에서 열린다. 도서전은 전국 지역 출판사들이 그동안 출판 진행한 과정과 결과를 모아 서로 만나 소통하는 자리다.

특히 고창군은 민선7기 유기상 군수 취임 이후, 인문학도시를 표방하

고 독서율이 가장 높은 고창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있어 한국지역도서전 개최 의미가 남다르다.

고창의 대표 인문공간인 책마을해리(해리면)를 중심으로 주요 일정이 진행되고, 전북도민체전의 주무대인 고창공설운동장, 청보리 축제와 연계한 고창학원농장(공음면), 고창문화관광의 핵심인 고창읍성(고창읍), 선운사(아산면) 등지에 지역출판도시 전시 판매부스가 운영된다.

고창한국지역도서전은 아시아지역 출판을 비롯해 한국지역출판역사, 지역에서 태어난 어린이책, 그림책,

예술성 짙은 책을 전시하는 특별부스를 준비해 지역출판의 격조를 확실히 한다. 이밖에 전라권역의 대표서점, 독립책방 초대전, 지역교사들의 학교출판 초대전과 저자와 만남 등 지역출판생태계의 다양한 모습을 엿보게 한다.

고창군 관계자는 "지역책아카이빙 비전선언 '고창선언선포식', '한지연의 날', '지역도서전기념도서출판 기념회', 지역예술인 공연 등을 통해 흥겨운 지역인문페스티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누에타운 곤충탐사과학관의 VR가상현실체험.

‘정글 탐험의 아찔함과 상상 속 모험의 짜릿함’

부안누에타운, VR/AR 시뮬레이터 체험시스템 본격 가동

2019년 황금돼지 기해년을 맞이하여 부안누에타운 곤충탐사과학관은 VR(가상현실)체험과 AR(증강현실)구현을 통해 살아있는 곤충과학관으로 변신하여 관광객을 맞이한다.

부안누에타운은 (재)전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기능성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으로 차세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체험콘텐츠 개발과 가동준비를 1년여 동안에 마쳤다.

VR체험은 국내최초의 체험탐승기구로서 개발된 10인승 6축 시뮬레이션에 탑승하여 부안누에

타운에 방문하는 상설전시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누에전문 과학관으로 2017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제8호에 등록된 168년 전통의 누에마을인 유유마을(변산면 마포리)에 위치하고 있다.

부안누에타운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을 찾는 방문객을 위해 관람준비를 완료 하였으며, 설 연휴 기간에도 관람할 수 있고, 설날 당일만 휴관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누에타운(063)580-4334-4082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누에타운은 살아있는 누에를 연중 관람할 수 있고, 전 세계

/부안=김석진기자

더 나은 삶 위한 자활사업 확대 추진

정읍시, '자활장려금 제도' 실시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2019년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길러내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을 더 크게 확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2019년도에 23억원을 민간위탁 자활사업에 투입하여 정읍지역자활센터와 산영농조합법인을 통해 저소득층 14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기금 등을 활용해 보다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지역일자리의 허브 역할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관련해 시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청년자립사업단(6명)을 인턴형, 또는 창업 준비형으로 운영할 예정이고, '16년도에 폐지됐던 '자활장려금 제도'를 부활해 자활사업 참여를 촉진한다. 자활장려금 제도는 자활참여자의 근

로소득 고취를 위해 자활소득의 30%를 공제하여 자활장려금의 형태로 추가가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자활장려금 제도 부활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가계소득이 월 50만원 이상 증가되어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노후 된 지역자활센터의 환경 개선을 신규로 지원하여 휴게 공간 설치와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지역자활 참여자들이 한층 쾌적하고 편안한 작업 공간 속에서 근무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활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자활참여자들이 취·창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자활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합동 설명회 개최

정읍시는 '기업하기 좋은 정읍만들기'를 위해 '2019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합동설명회'를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신청동에 위치한 농축산물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1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북중소벤처기업청이 주최하고 정읍시가 주관하는 이번 합동 설명회는 전라북도, 산업통상자원부, 전북지방우정청 등 16개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체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경제 발전의 주역인 중소기업체인 만큼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 도모와 성장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자금지원, 창업지원, 기술지원, 인력지원 등에 대한 기관별 설명이 이루어진다. 참여 기관은 지원

시책을 중심으로 설명한 후 기업과 유관기관 간 질의·응답을 갖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체와 전라북도, 정읍시의 기관별 중소기업 지원 사업 안내 책자와 팸플릿 등을 제공하는 등 한눈에 중소기업 지원정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인 만큼 관내 기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란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이차보전,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업애로 및 고충처리 담당 운영, 국내의 박람회 참가 지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기업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관내 중소기업체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식가공품, 저렴한 가격에 설 선물 준비 하세요”

고창 베리앤바이오토포연구소 오늘부터 이틀간 특가 선물전

(재)베리앤바이오토포연구소(이사장 유기상)와 고창군이 설 명절맞이 관내 식품가공제품 특가 선물전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선물전은 오늘부터 이틀간 고창군청 주차장에서 고창군 13개 기술이전체와 4개사회적 기업 등 17개 식품업체에서 참가한다.

선물전에선 고창 특산물 활용해 연구소와 업체가 생산한 복분자 등 건강 음료, 전통 한과, 장류·식초 등 발효식품류, 분말류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 판매된다.

특히 행사 기간내 제품 가격을 대폭 할인해 선물전을 찾는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베리앤바이오토포연구소는 지금까지 연구개발한 제품을 고창군 식품업체에 기술이전하고 위탁생산을 지원해 왔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기술이전 제품의 홍보와 판매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베리앤바이오토포연구소 유기상 이사는 "업체는 판로 확보하고, 주민들은 싼 가격에 고품질 가공품 구입할 수 있어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앞으로도 연구개발에 그치지 않고, 관련 제품의 마케팅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정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뽕이 곱게 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호 | 750ml 1ea/12%

GIFT SET 4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호 | 375ml 5ea/13%

GIFT SET 6호 | 500ml 정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84-8960
www.gangsanwine.com